

〈지난주 말씀〉

▶오늘 제목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안개를 만나지만, 차를 몰기 힘들 정도로 짙기도 하지만, 해가 뜨면 안개는 사라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저는 지난 한주에 91살 장로님의 장례를 다녀왔고 25살인 청년의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91살 장로님은 오래 살아서 좋고, 25살인 청년은 안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나그네 인생에게는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가야 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해놓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있고 그 약속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주일이 아버지 주일입니다. 진정한 나의 부모님은 누구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통일교 사람을 만났는데 문선명에 대해 제가 얘기하니까 마구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내는 줄 알아요? 참 부모님을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고, 문선명이 참 아버지고 한학자가 참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참 부모가 누구십니까? 다음주에는 스승 주일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오늘부터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생각의 복음화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 주옵소서, 제자를 보내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문이 닫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제자와 사람과 중직자와 일꾼을 보내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시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날마다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허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복음화가 안되면 말이 복음적인 말이 안 나옵니다. 이 복음의 말은 살리는 말, 생명의 말입니다. 이 살리는 말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오직 복음이 맞다면 오직 복음만 전하고 오직 복음으로만 답을 내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교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이 답을 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걸 나에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장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도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는 사람으로 응답을 먼저 받으라는 것입니다.

▶허는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온 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허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복음화가 안되면 허가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복음화가 된 사람은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누구길래 말을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전 과거에 복음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생각나는대로 말했습니다. 생각의 복음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살리는 말이냐, 생명의 말이냐, 복음의 말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아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저주를 한 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맞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맞춘 자입니다.

〈본론〉

1.세상과 벗하지 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을 벗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약4:1)

세상과 벗하면 반드시 싸움과 다툼이 옵니다. 세상의 문화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은 정욕에서 나온 다, 이 말은 싸움이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맘에 안드라고, 내 기분에 안 맞는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판을 보면 전부 다 싸우는 정욕에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약4:2)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인을 합니다. 경쟁하고도 취하지 못하면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면 안되니까. 그러니까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약4:3)

중요한 말입니다.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성취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내 욕심과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한 여인들이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약4:4)

간음을 여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들 다 해당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과 벗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입니다. 삶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간음까지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벗되어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벗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가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보고 복음의 사람의 영적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5가지 흐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흐름입니다. 기도의 흐름입니다. 전도의 흐름입니다. 현장의 흐름입니다. 국가의 흐름입니다. 이 5가지 흐름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느냐, 이걸 아는 사람이 흐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5가지 흐름에 내 인생이 안 맞으면 그건 팽입니다.

2.마귀를 대적하라

▶나를 방해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영적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여러분의 방해꾼이고 여러분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방향을 엉뚱하게 트는 존재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마귀입니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질병을 낫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약4:5)

오직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크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싸움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렸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

였느니라(약4:6)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이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망대, 절대망대를 가지고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여정과 이정표에 방향을 맞추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4:7)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재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분만이 온 세계와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지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우리는 토를 달지 말고 복종해야 합니다. 이유와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무조건 말씀 앞에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피하고 도망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물리쳐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통해 마귀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약4:8)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충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손이 더럽다는 말은 손 버릇이 안 좋다는 말이지요. 복음의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때문에 울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 없이 사는 것을 가지고 울어야 합니다. 안개같은 인생에 정말 복음으로 답이 안 났다면 그걸 가지고 슬퍼하고 울어야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약4:9-10)

나를 높이지 마시고 주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세상은 내가 높아지려고 싸우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자기가 싸워서 이긴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집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속에서 정말로 성령충만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책임

진다는 사실입니다.

3.안개같은 인생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약4:11)

남이 어떻게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형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이 맞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작정하심을 통하여 나와 안 맞거나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율법의 준행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지켜지고 그 삶을 따라 사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약4:12)

율법을 지키고 준행하고 살아야 할 사람인 네가 재판관으로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재판관인 것처럼 남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복음의 사람에게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지금 말씀과는 완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웃을 판단하느냐,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약4:13)

이 말은 자기 생각대로 바로바로 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4:14)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저기 가서 성공할거야, 돈을 벌거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도대체 뭐냐, 이게 네 거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것입니다. 네 생명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너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만하지 말고

생각 바르게 하고 말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약4:15-16)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주의 뜻이다, 주의 뜻이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허탄한 자랑이고 다 악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약4:17)

구원받은 형제의 허물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한번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땅에서 사는 동안 신분에 따라 본향이 결정됩니다.

▶복음의 망대를 세우길 바랍니다. 여정은 내 인생입니다. 이정표는 내 방향입니다.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진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세상과 벗어나고 하나님과 벗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같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동안 내가 뭐하며 무엇을 하다 살 것인지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